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현재와 미래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68:1-3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같은 학자들은 모든 시편은 메시아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William L. Pettingill은 14개의 시편 메시아 시로 보는 가운데 시편 68편을 메시아 시로 구분했습니다.

시편 68편은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주제로 이어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확실하게 메시아 시로 보이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말씀이 18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 시는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서 미래 축복의 날을 바라봅니다. 미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함께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 1. 현재 구원

시편 68편에서의 주 변화는 19절의 '날마다' 라는 단어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과거처럼 현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본 시의 전반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행군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승리가 있거나 왕국이 견고한 터전에 세워졌을 때 찬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찬양은 자주 일어났음을 볼 수 있고, 32-35절에서 정점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구원하시며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욘 2:9).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 축복의 희망은 우리를 위해 과거에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 2. 미래 승리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23절).

이 말씀은 둘러싼 원수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역사적 승리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21-23절은 백성의 미래 승리를 말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계 18-19장에 묘사된 것처럼 바벨론 멸망에서의 인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속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의인으로 영광을 받게 되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야고브 9:1-3절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아주 먼 곳,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백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 3. 지파들의 행진

24-27절은 예루살렘과 그 성소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을 묘사합니다. 본 시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쓰여진 것이라면 삼하 6:5, 대상 13:8, 15:16-28에 기록된 것을 충분히 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는 네 지파들 곧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남과 북에서 각각 두 지파씩 대표로 선택된 것입니다.

### 4. 메시아 시대

28-31절은 본 시 후반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백성들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 나라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몇 나라들, 애굽과 구스를 시적 언어로 제시합니다.

시편 66-67편의 만민구원설은 68편에서 발전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나라는 시온,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방나라들의 모임은 예언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60장에서 이 주제는 아름답고 힘차게 발전되어 묘사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는 나라들을 묘사합니다.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3)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서부터 충만히 비쳐질 때를 언급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을 실제로 다스리게 될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대 명령을 순종함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시편 68은 그러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28절).

이것은 건전한 성경 신학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 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목표는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에게 올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고 또 주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고 나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2회 총회 은혜 중 마칩다

## -사도신경 공포, 우리교회 특별상 받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2회 총회가 지난 10일(월) 개최되어 13일(목)까지 청주에서 열렸다.

특히 지난 총회에서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이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 개회 벽두에 총회장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 번역 사도신경을 채택 사용케 됨을 공포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을 가진으로 이 일을 시작부터 주도한 서울교회는 특별한 감회가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저녁시간에는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교회 박이선 집사(3교구)는 100만인 전도운동 개인전도상을 수상했고 우리교회가 소속된 서울강남노회가 노회부문을 수상했다.

특히 이종운 목사는 총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성경표준주석 출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국제선교학술대회

## -장신대와 서울교회 공동주최-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서울교회가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주제로 9월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국제선교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개혁신학대학의 Paul Wells(조직신학, 변증학, 선교학)교수를 주 강사로 종교개혁운동에 나타난 선교와 부흥, 종교개혁과 프랑스 개혁교회 등의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Paul Wells 교수는 영국태생으로 이종운 목사와

함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동문수학한 오랜 친구면서 지난 해 KIMCHI 세미나에 세계개혁주의 신학자들 초청 시 참여한 바도 있다.

Paul Wells 교수는 우리교회에서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 설교를 하고, 17일(월) 오후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도 '중보자 그리스도-갈방(갈빈)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그리스도의 의무 제하의 특강도 한다.

# 추석 연휴-성경통독사경회로

## 신약성경 전권을 통독

### 9월 24일(월) 08:00 - 25일(화)12:00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성경통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기 위한 성경통독 사경회가 추석연휴 기간 중인 24일(월) 오전 8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시작된다.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며 회비는 1만원(식비, 간식비)으로 오늘부터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성경통독범위는 신약성경 전체(4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이며 서울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진행방식 및 요령은 매 교시 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하고, 낭독자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도들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며, 눈으로만 글씨를 보

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끝부분에는 "아멘"이라고 외친다.

또한 성경전체의 흐름(맥)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며, 손으로 색연필을 들고 은혜 받은 구절에 줄을 치거나 각종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더욱 은혜롭다.(예) 주황색: 경고의 말씀(회개), 빨강색: 약속의 말씀, 파랑색: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고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평화 그리고 자유·정의 세미나

## 여전도회 회관에서 21일(금) 오후2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려져야겠다는 요청에 의해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운)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수영) 공동주최로 평화 그리고 자유 정의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다.

평화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이해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국민 앞에 발표케 될 것이다.

강사로 이종운(서울교회), 이수영(새문안교회) 두 목사와 김상철 장로(미래한국신문 발행인)가 나선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 10월7일(주일)은 차 없는 주일로

## 대중교통이용, 카풀실시

우리교회는 10월7일(주일)을 '차 없는 주일'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실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이 운동에 동참한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 이 운동에 동참하여 내가 조금 불편하면 지구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 금주의 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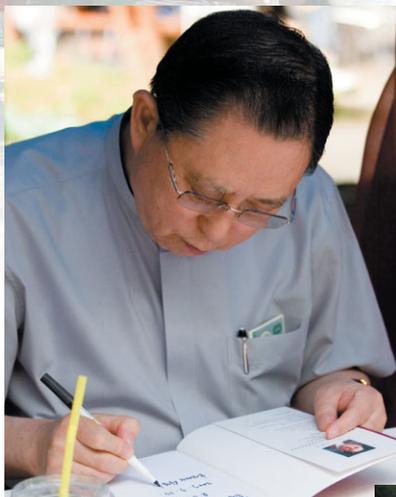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2:14-18)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bless and do not curse.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Romans 12:14-18 [NIV])

2007 열린 바자

# 사랑의 집 건립 - 모퉁이 돌로써...

“  
 2007 열린 바자는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땀을 흘린 귀한 행사  
 ”



“  
 열린 바자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

◀저서 친필 사인 외중...



테이퍼 커팅을 하고-김광신장로, 행정주강남구청장, 이종윤목사 공성진의원, 홍순복시도, 이민와권사, 이동귀 부목장, 이영의 권사(좌로 부터)

각종 먹거리와 산지 직송 과일, 쌀, 고추, 반의 반값도 안 되는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 기능성 수입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어느새 서울교회 바자의 명물로 자리잡아 매년 이때를 기다리며 쇼핑하는 알뜰 주부파들이 많이 있다.

이번 바자의 특별 이벤트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이종윤 목사님 책 사인회와 열린 음악회는 성도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첫째 날 이종윤 목사님 책 사인회에는 우리교회 교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반가웠던 행사였다. 때마침 개회 중인 교단 총회에 참석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흔쾌한 마음으로 사인회에 응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의 열린 음악회는 글로리아 중창단과 아멘 관현악단, 에바다부수화 찬양, 독창과 호산나 학교 학생들의 풍물놀이까지, 그 중 호산나 학교 학생들의 풍물놀이로 음악회의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는데 우리의 수고가 바로 이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교회 앞마당에서

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워낙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아서 다소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전도용, 손님 초대용으로는 매우 높은 효과가 있었다는 평이다.



한티공원에서 소시지를 판매한 호산나학교 학생들

이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바자위원회,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말할 수 없는 수고로 점포를 배치한 시설관리팀, 질서정연한 안내로 방문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주차관리팀, 양일간 성도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신 주방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가정의 귀한 헌물로,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하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 열린 바자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바자의 수익금은 이웃돕기와 탈북자 그리고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집 건립의 모퉁이돌로서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바자위원회 홍보부



한티공원에서 빈대떡을 부치며

리며 교회 앞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쿠폰 제도는 어느 정도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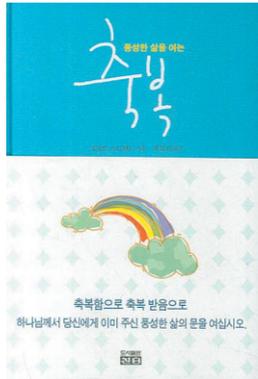
한권의 책

수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있고 있었던 진리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져 내려와 큰 유익을 안겨 주고 있는 '축복'이 가진 힘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누군가 재채기를 했을 때 흔히 하나의 에티켓으로 "God bless you(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한다. 저자인 로버트 스트랜드는 이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한 단어를 내뱉는 것 이상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축복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그 힘은 매우 강력하고, 그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의 운명과 미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듯이 '무릎을 꿇다' 혹은 '무릎 꿇어 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일깨워 주는 것이며, 그의 존재 자체의 중요

# 축복



성을 복돋워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을 느끼게 해주며, 그를 세우 주고, 용기를 주며,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삶의 동기를 더하여 준다. 요컨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는 그를 좀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저자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축복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을 베풀 때 그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가 속한 사회를 회복시키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되어 준다.

저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실제적인 지침들과 풍부한 사례들을 친절하게 수록해 놓았다. 풍성한 삶을 여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께 일독을 권한다. (편집부)  
\* 로버트 스트랜드, <축복>, 박효진 역, 도서출판 진흥, 2006.

## 2007 성경암송대회

범위: 디모데 후서  
10월21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6일(금) 본선 - 602호에서

2007 성경암송대회는 10월21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르고 예선에 통과된 성도들은 10월26일(금) 602호에 모여 본선을 갖는다.

성경암송대회의 본선은 (개역개정판) 디모데 후서 전장을 범위로 한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특별찬양

이번 주 찬양예배는 한국의 정상급 서정 테너 이영화 교수의 찬양으로 드려진다. 이 교수는 이태리 신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티토 스키파 국립음악원을 졸업 하였으며 로마 국제 오페라 콩쿨 우승, 호세 카레라스 최고 테너상 등을 수상하였고 현재 안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늘 저녁에는 Tosti 의 기도를 포함한 세 개의 성곡으로 찬양 드린다.

### 등정

- 이종운 목사는 17일(월) 국제선교학술대회 개최예배설교를 한다. 18일(화)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하고 20일(목) 연세동문회보 인터뷰, 21일(금) 평화 그리고 자유 정의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다.
- 오정수 장로(9교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92회 총회 회계로 선임되었다.
- 이전개업: 류은형성도, 구연복성도(1교구), 현대부동산(대치4동916-17, 568-8642)
- 주간식당봉사: 당회원(9.16) 스테반회(9.23)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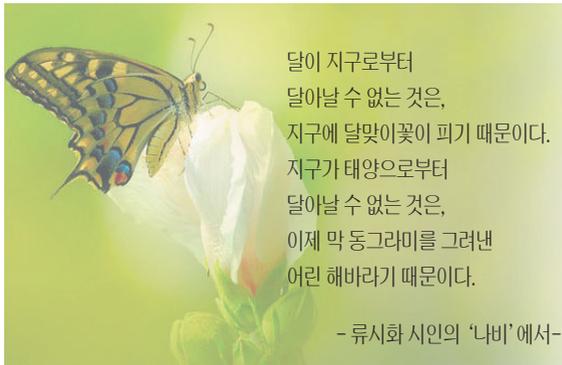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치엿는 주일을 위하여..

## 자연권(natural rights)을 찾읍시다!

자연권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땅에 가득 차도록 번성하였습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지구가 달맞이꽃이 피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이제 막 동그라미를 그려낸  
어린 해바라기 때문이다.

- 류시화 시인의 '나비'에서-

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때 각각 그 존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만 인간의 삶도 지속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중심의 사고로 인해 생태계를 훼손하였고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제 자연권(natural rights)도 인권을 넘어서 자연의 권리(the right of natural)까지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교회는 10월7일(주일)을 '차 없는 주일'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실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연권을 찾을 때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태계까지 시선을 돌려 자연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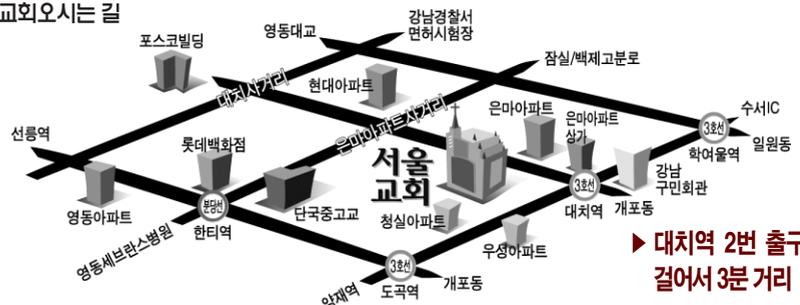
(편집부)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3. 다락방마다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하도록
4.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의와 영광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